

복음주의와 종교개혁

목 차

(조직신학)

□ 목 차 □

서 론

I. 탐의 경험과 면죄부 판매

1. 탐의 경험
2. 면죄부 판매

II. 오직 성서, 오직 십자가

1. 오직 성서
2. 십자가 신학

III. 종교개혁과 복음주의

결 론

서 론

복음주의는 현대의 산물이지는 하나 개신교의 여러 신앙운동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들은 복음주의의가 나아갈 길과 방향을 예비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을 제공했다. 그 중에도 종교개혁은 복음주의의 정체성 해명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개신교의 시발점이고, 현대 복음주의의 근원지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의 중심 주제들과 신앙 원리들이 복음주의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종교개혁은 여러 측면에서 조명되고 있다. 그것은 종교자체의 부흥이었

으며, 중세 시대 경건의 마지막 만개 현상이었다. 또한 중세를 지배하던 종교구조를 혁파한 사건이었다. 종교 개혁을 통해 로마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 한 신앙, 한 세례 개념으로 형성된 중세의 포괄적 국가 종교 관념이 붕괴되었다. 한편, 내면적으로 본다면, 종교개혁은 기독교 갱신운동이었다. 초대 교회의 순수한 모습을 회복하려는 것이었다.

현대 복음주의는 위기에 처했으며, 가장 큰 위기는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흔히 지적된다. 참으로 복음주의가 무엇이며, 복음주의자가 누구인가가 불확실하게 되었다. 그것은 복음주의의 뿌리와 역사적 유산에 대한 무관심으로부터 일어난 현상이다. 그렇다면, 복음주의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무엇인가? 복음주의의 뿌리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음주의의 주요 근원인 루터의 종교 개혁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으며 무엇을 강조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복음주의의 역사적 유산이 무엇이며 종교개혁과 현대 복음주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해명하려고 한다.

1. 탑의 경험과 면죄부 판매

16세기 유럽 대륙은 중세가 마감되고 현대가 동티 오르는 여명기였다. 르네상스 인문주의, 민족 국가의 출현, 과학문명의 발전은 중세를 지배하던 교회 체제에 심각한 도전이 되었지만, 종교 개혁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되기도 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고대 헬라와 로마 문화의 부활을 꿈꾸며 고전을 강조함으로써 교회에도 성서로 돌아가야 한다는 자극을 주게 되고, 교황의 절대 권위에 균열이 일어나게 했다.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민족주의적 왕정 국가의 출현은 거대한 국가 체제를 형성한 가톨릭교회의 보편주의와 획일주의에 타격을 가했다. 과학 문명의 발전, 특히 인쇄술의 발전으로 성상과 같은 교회의 전통적 통신 매체가 힘을 잃게 되었다. 사회, 경제적으로는 봉건주의에서 자유 민주주의로, 그리고 농업사회에서 상업주의 자본 사회로 전환되며, 상인 계층이 등장하여 의회를 장악하고 중세 교

회의 지지 기반인 봉건 영주 세력과 충돌하게 된 것이다.¹⁾

종교 개혁은 루터가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그 이전에도 개혁을 시도한 사람이 없지 않았다. 그들은 삶과 행정 및 도덕적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지만 교리적 개혁은 거의 염두에 두지 못했다. 특히 교황에 관한 교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²⁾ 따라서 종교의 근본적인 개혁에 이를 수 없었다.

루터는 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인가? 그가 종교 개혁에 대한 의식을 가지게 된 것은 소위 ‘탑의 경험’이었다. 그것은 그가 비텐베르크 수도원에서 강의 준비를 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복음을 재발견한 것을 말한다. 한편,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창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였다.

1. 탑의 경험

말틴 루터(Martin Luther)는 1483년 독일 작센의 아이슬레벤에서 부유하고 경건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강인하고 솔직한 성품의 청년으로 성장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에어푸르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1505년 어느 날 친구와 들판을 지나다 폭우 속에서 벼락을 맞았다. 친구는 죽고 자신만이 살아난 충격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도사가 되기로 서원하고 에어푸르트 대학 가까이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갔다.³⁾

루터는 수도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한편, 에어푸르트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했다. 그는 철학과 신학의 기본 문제에 관해서는 당시 성행하던 오캄주의로부터, 그리고 죄와 은총에 관해서는 어거스틴 사상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다. 또한 선배 수도사요 어거스틴 파 수도원 독일 지부 책임자 스타우피츠(Staupitz)로부터 많은 배려와 감화를 받았다. 그의 지도에 따라 성경연구, 특히 바울서신 연구에 전념하게 되었다. 1508년 비텐베르크 대학 학장이 된 스타우피츠는 루터를 그 곳으로 불러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대한 강의를

1)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84), pp. 6 - 9.

2) 오언 채드윅, [종교 개혁사](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p. 12.

3) 칼-하이츠 츠어 뮐렌,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 (서울:대한 기독교서회, 2003), p. 47.

하도록 했다.

루터가 수도사가 된 것은 죄의식과 구원의 문제 때문이었다. 특히 구원 문제는 그가 평생 고심하던 문제였다. 그는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 철야기도, 고행, 금식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성인의 공로에 의존하기도 했다. 그러나 성인들의 공로에 대한 그의 신앙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1511년 로마를 방문한 기회에 소위 ‘빌라도 재판정’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오르면서, 고행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에 회의하게 되었다. 그는 비텐베르크로 돌아와 대학 동쪽 끝에 위치한 수도원 다락방에서 강의 준비를 하며 성경의 의미를 탐구하는 가운데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탐의 경험’(Turmerlebnis)이다.

탐의 경험은 성서로부터 복음을 재발견한 것을 말한다.⁴⁾ 루터가 수도원 탐 속 다락방에서 로마서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의에 관한 개념과 칭의 교리였다. 루터의 종교 개혁적 인식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의 재발견이었다. 루터는 지금까지 이 구절을 “율법을 통해 죄인을 위협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통해 그의 요구와 위협을 더 강화시키는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의”로 이해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화로 이해하게 되었다. 즉 하나님이 그의 선물인 의를 복음을 통해 계시하시고, 인간은 오직 신앙으로 이 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루터는 이 사실을 통해 복음의 위로를 체험하게 되고, 그의 영혼이 그렇게 갈망하던 평화를 찾게 되었다.⁵⁾ 또한 로마서에서 복음을 통찰하고 로마서를 통해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 원리를 터득하게 되었다.

요약하면, 루터의 종교 개혁적 인식은 탐의 경험과 [시편강의] (1513-15), [로마서 강의] (1515/16), [갈라디아서강의] (1516-17)에서 비롯되었다.⁶⁾ 인간은 오로지 믿음 안에서 의로워진다는 복음 신앙이 종교개혁 신학

4)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서울 :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4), p. 24.

5) Ibid., pp. 24 - 28, 베른하르트 로제, [마틴 루터의 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2), pp. 135 - 138.

6) 루터는 종교 개혁에 대한 통찰을 어떤 문제로 언제부터 가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루터와 종교 개혁 연구가들이 아직도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2. 면죄부 판매

루터가 종교 개혁적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은 로마서 연구를 통한 복음의 재발견에서 비롯되었지만, 그가 종교 개혁을 실제로 주창하게 된 것은 면죄부 판매 때문이었다. 그는 고해 성사와 면죄부가 결합되는 것을 보고, 분연히 일어나 95개 논제를 통해 개혁을 외치게 된 것이다.

면죄부는 본래 십자군에 참전한 병사들에게 사죄에 필요한 고행을 면제 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다. 그러나 교황청은 면죄의 대상을 점점 확대하고 다양한 종류의 면죄부를 발행하여 교회 수입 확대의 수단으로 그것을 활용했다. 교황청이 면죄부 판매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한 것은 교회의 보화 교리였다. 그리스도와 성자들은 그들의 구원에 충족되고도 남은 선행을 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잉여 선행을 하늘의 보고에 저장하고 그 처리권을 교황에게 위임했다. 교황은 죄인이 참회 할 때, 그에 상응하는 돈의 기부를 언도함으로써 이 선행들을 죄인에게 이양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교황청은 재정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의 완공을 위해 새로운 면죄부를 발행했다. 독일 마인즈 대주교 알베르트(Albert)는 성직자가 면죄부에 대해 설교하고 그것을 팔아야 한다는 교서를 선포했다. 그가 면죄부 설교자로 고용한 테첼(Tetzel)은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이 해방되어 낙원으로 간다고까지 주장했다.

1517년 10월 31일 모든 성인을 기념하는 만성절 축제 전야, 루터는 면죄부 발행을 비판하는 “면죄부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이란 제목의 95개 조항의 논제를 작성하여 비텐베르크 성(城) 교회의 정문에 써 붙였다. 이것은 루터의 종교개혁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는 이 논제에서

하나다. 학자들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1514년 가을 루터는 이미 종교개혁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초기설과 1518년에 가서야 그런 의식에 이르게 되었다는 후기설이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종교 개혁 태동의 연도를 1513년에서 1520년 사이에서 추정하고 있다. 로제, [마틴 루터의 신학], pp. 127 - 129.

믿음에 의한 칭의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근거에는 칭의의 교리가 놓여 있었다. 그는 칭의의 교리에 근거하여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며 “하나님이 교회를 짓는 바로 옆에 마귀는 자신의 제단을 놓는다”고 주장했다.

루터가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게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된다.⁷⁾ 첫째, 그것은 독일 국민의 민족의식을 대변한 것이다. 독일 사람들은 이탈리아 인이 가난한 그들로부터 강제 징수하는 것에 대항했으며, 루터가 들의 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둘째, 교황의 권위가 연옥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다. 루터는 면죄부를 완전히 배격한 것은 아니라 면죄를 연옥의 형벌까지 확대 적용하여 죽은 자를 위한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은 반대했다. 그는 교회가 죄인에게 부여하는 한시적 형벌에 대한 면죄부는 인정했다. 셋째, 면죄부는 죄인들에게 잘못된 심리상태를 초래한다. 무지한 사람들은 자신들은 면죄부를 샀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고해 신부였던 루터는 면죄부가 죄인들에게 진정한 참회보다 오히려 태만을 조장한다는 것과 평안은 오직 신앙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직시했다. 따라서 면죄부를 순진한 사람들을 오도하고 기만하는 악행으로 간주했다.

루터가 처음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교황이 아니라 면죄부 설교자들이었다. 만일 교황이 면죄부에 대한 불법적 거래와 강제 징수에 대해 안다면, 그것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이를 말해 준다.⁸⁾ 그러나 자신의 제의가 교황청으로부터 거부되자, 공격의 칼끝을 교황에게로 돌렸다. 1519년 루터는 교황 제도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황에게 최고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근거를 발견했다. 그는 성경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를 대비하게 되고, 교황은 신적 권위로 교회의 머리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는 교황의 절대 권력을 비판하기 시작했으며 교황의 무오성은 물론, 종교회의의 무오성도 부인하

7) 로랜드 H. 베인톤, [16세기의 종교개혁](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2), pp. 49- 51.

8) 채드윅, [종교개혁사], p. 42.

게 되었다.

로마 교회는 교황의 절대 권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이단시했다. 1520년 여름, 교황청은 루터의 41개 조항을 이단적인 것으로 정죄하는 ‘교황의 교서’를 발행했다. 그리고 루터에게 2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며 그의 주장을 철회하든가, 아니면 파문을 당하든가 하라고 압박했다.⁹⁾ 루터 배후에 후원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의 외침은 침묵으로 변했을지도 모른다. 작센의 선제후 프레드릭이 그를 보호하고 독일 민족주의자들은 그를 변호했으며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이 그를 국제적 지지했다. 따라서 루터는 교황청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1520년 12월 많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교황의 교서를 불 태웠다.

1521년 교황은 루터를 파문했으나, 루터의 후견인 선제후 프레드릭은 루터에 대한 정당한 재판을 요구했다. 독일 황제 카를 5세는 보름스에서 제국 의회를 소집하여 루터를 재판하게 되었다. 의회는 루터에게 황제의 면전에서 그의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성경 이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의 신념을 결코 굽히지 않았다.

의회는 루터에게 귀향할 수 있는 40일의 기간을 허락했다. 그는 안전 통행권을 지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 프리드리히가 보낸 일단의 기병들이 그를 납치하여 아무도 모르게 바르트부르크 성에 유폐했다. 루터는 1년 가까이 그 성에 머물면서 헬라이어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한편, 여러 편의 종교개혁에 관한 논문을 집필했다. 신약 성경 번역은 루터의 최대 업적 가운데 하나요, 그의 종교 개혁에 결정적 동력이었다. 그것은 그의 찬송가들과 함께 종교개혁의 기둥이 되었다. 왜냐하면 평신도들이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교회의 잘못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개혁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루터의 95개 논제는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다. 그것은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에 힘입어 대량으로 인쇄되었고, “마치 천사들의 전령이 된 것처럼 순식간에 독일과 전 유럽에 퍼져 나갔다.” 루터의 주장은 독일의 많은 강단에서 선포되기 시작했으며, 많은 수도사들이 개혁을 설교하기 위해 수도회를 떠났다. 멜랑톤 같은 인문주의자들이 루터의 종교개혁에 합류했다.

9) Ibid. , p. 54.

특히 멜랑톤은 루터의 후계자가 되어 루터의 개혁사상을 체계화했다.¹⁰⁾

1529년 슈파이어(Speyer)회의에서 개혁에 호의적인 제후들이 황제와 가톨릭교회의 제후들에 대항하여 항의문을 전달했으며, 이 항의문에서 프로테스탄트(Protestant)라는 개신교의 명칭이 유래했다. 1530년 멜랑톤이 작성한 아우그스부르크 신앙고백(Augsburg Confession)은 루터파 교회의 신앙과 교리의 표준이 되었다. 루터파 교회는 독일어 성경과 찬송가, 요리문답을 사용하고, 성례의 수를 축소했으며 예배 의식이 개혁되었다. 사제들의 결혼을 허락하고, 수도원으로부터 수도사들의 자유로운 이탈을 허용했다. 1531년 개신교도인 제후들과 도시들은 슈말칼덴 동맹(Schmalkaldic League)을 결성하게 된다. 그것은 로마 가톨릭교회와 황제에게 저항하고 신교도들을 보호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부상했다.¹¹⁾ 1555년 “그 지역은 그의 종교”로 요약되는 아우스부르크 평화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영주가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지역별 종교의 자유가 확립되었다.

1546년 루터는 죽었지만, 그가 독일에서 일으킨 개혁의 불길은 멈출 줄 모르고 츠빙글리와 칼빈의 스위스 종교개혁으로, 스위스 계곡을 넘어 이탈리아로, 프랑스를 거쳐 스페인으로, 바다를 건너 영국으로, 그리고 전 유럽 대륙으로 확산되었다.¹²⁾

10) 종교개혁이 독일과 유럽에 확산된 요인으로는 독일 사회의 특성과 터키의 역할을 또한 지적할 수 있다. 독일은 황제와 제후들의 권력관계가 종교개혁 수용을 위한 좋은 여건을 형성했다. 제국 도시들은 황제의 통치권 아래 있었으나, 황제가 먼 곳에 거주했기 때문에, 제후들이 새로운 영향들을 수용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었다. 한편, 터키가 유럽 세계를 공격한 것이 종교개혁 확산의 또 다른 기회가 되었다. 교황과 황제들은 터키의 공격을 막기에 급급했으며, 그 틈에 루터의 종교개혁은 확산될 수 있었다.

11) Ibid., p. 63.

12) 독일의 종교개혁은 루터의 95개조로부터 시작된 반면, 스위스의 종교개혁은 소시지로부터 시작했다. 1522년 사순절 첫 주일에 인쇄업자 프로샤우어의 집에 대표자들이 모여 돼지 고기로 만든 소시지를 먹음으로 전통적인 음식 규정은 파기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보여주려는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서에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고기 먹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츠빙글리도 그 모임에 참석했으나, 소시지를 먹지는 않았다고 한다. 뮐렌,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 p. 118.

II. 오직 성서, 오직 십자가

루터는 16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면서도, 자신의 신학 사상을 집대성하지 않았다. 그는 조직신학자나 교의학자라기 보다 오히려 설교자였다. 그는 멜랑톤처럼 [신학해제]도 칼빈처럼 [기독교 강요]도 저술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것을 말하기보다 ‘성경에 포함된 진리와 정통 교회의 교의’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을 자신의 소명과 과제로 여겼다. 그의 모든 신학 작업은 “성서의 권위와 여기에서 파생된 교회의 올바른 전통의 권위를 전제하고 있다.”¹³⁾

루터의 종교개혁 신앙은 “오직이란 단어 옆에서 서거나 쓰러진다.” 종교개혁의 요체는 ‘세 가지 오직’(Three Solas)이었다.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은총’(sola gratia) 그리고 ‘오직 신앙’(sola fide)이다. 종교개혁의 형식적 원리가 ‘오직 성경’이었다면, 내용적 원리는 ‘오직 은총’과 ‘오직 신앙’이었다. 루터가 발견한 기독교의 중심 진리는 이 세 가지 오직과 만인 제사장 직이다. 따라서 그것을 종교 개혁의 원리와 중심 주제로 삼았다.

1. 오직 성서

종교개혁의 중심 원리는 성경을 중시하는 것이다. 루터는 성서와의 끊임 없는 교제 속에서 생각했으며 “성서를 통한 근거 설정과 인도 없이는 거의 한 발자국의 신학적인 걸음을 내딛지” 않았다.¹⁴⁾ 종교개혁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강대 상 아래 숨겨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회복하는 것이었다. 루터는 평신도들도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신약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했다. 성경 번역은 루터가 이룩한 최대의 종교적, 문학적 업적 가운데 하나였다.

루터는 면죄부 판매 문제로 로마 교회와 논쟁을 시작한 초기만 해도 성서와 더불어 교부, 교회 및 이성의 권위를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논쟁이

13) 파울 알트하우스, [마르틴 루터의 신학](서울: 성광문화사, 1944), p. 21.

14) Ibid., p. 22.

격렬해짐에 따라 성서를 교회 및 교황 권과 대립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중세 로마교회는 교황의 권위에 관한 3개의 거대한 담을 쌓아 놓았다. 교황은 영적 문제에서 최고의 권위요, 성서해석에서 유일한 권위며, 교황만이 교회 회의 소집 권을 가진다는 것이다.¹⁵⁾ 로마 교회가 성서보다 교황이나 교회에 더 권위를 부여하는 논거는 교회가 성경을 창출했으며 정경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오직 교회만이 성서의 의미와 성서에 대한 해석을 결정할 수 있는 교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고의 권위는 교회에 있으며, 교회의 교도권을 소유한 교황이 최고의 권위자라는 것이다. 교황만이 성서 해석의 유일한 권위자며, 교황 외에 누구도 성서를 해석할 수 없다. 교황은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에 주신 무오성을 소유하고 있다.¹⁶⁾ 이 거대한 담은 로마 교도들이 중세 1000년 동안 서방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기반이었으며, 그 뒤에서 자신들을 방어했던 장벽이었다. 그들은 이에 근거하여 성서보다 교황, 공의회, 교회의 권위를 앞세워 루터를 대적하고 그에게 이 권위에 철저히 복종할 것을 요구했다.

중세 교회의 타락은 그 거대한 담에서 비롯되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그 담들은 교회를 부패하게 만든 원인이요 온상이었다. 그 것 때문에, 누구도 교회를 개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침묵을 지킬 때는 지나가고 이제는 말할 때가 왔다”고 선언하며, 그 담을 신학적으로 논박하며 허물기 시작한 사람이 루터였다. 그가 1520년 저술한 종교 개혁 3대 논문 가운데 하나인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강한 나팔 소리 같이 혁명의 함성이었으며 종교개혁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¹⁷⁾ 루터는 로마 교회 신학자들에 맞서, 일반 통치자들에 대한 교황의 권위를 공격했고 교황이 성서의 궁극적 해석자라는 것을 부인했으며 교황청의 부패를 비판했다. 또한 성서와 로마 교회를 대립시켰다. ‘오직 성서만으로’라는 그의 모토는 성서와 전통을 동일시하거나 심지어 성서보다 전통이

15) 말틴 루터, [종교개혁 3대 논문] (서울: 컨콜디아사, 1993), p. 28.

16) 빌헬름 니젤, [비교교회론](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pp. 48 - 56.

17)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은 1520년에 저술한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 [바빌론 포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한다.

나 교회에 더 권위를 부여하는 로마교회에 대한 항거였다. 교부나 교황, 혹은 신학자들은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 “성서는 결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만이 무조건적인 권위를 지니는 것이다.”¹⁸⁾

루터가 성서의 권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더 자세히 밝힌 것은 1519년 라이프찌히 논쟁에서 였다. 그는 “오직 성서”를 주장했으며, 오직 성서에만 의존했다. 그에게 궁극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 다른 것일 수 없었다. 성서에서 선포된 진리만으로도 구원받기에 충분하며, 그 외 어떤 것도 구원을 위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성서는 항상 교회보다 먼저이고, 우선적이고 높은 것이다. “교황의 권력은 성서와 진리의 위엄을 넘어서거나 위배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위하고 그리고 그 아래 있어야 한다.”¹⁹⁾

루터는 교회가 성서를 창출했기 때문에, 성서는 교회를 통해 효력과 능력을 얻는다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다. 교회가 정경을 확정한 것은 사실이나, 그 교회를 창조한 것은 복음이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복음이며, 성경 해석의 유일한 열쇠와 표준 역시 복음이었다. 또한 교황이 교도권을 통해 성서를 해석해야 한다는 로마 교회의 주장을 반박하고 성서는 성서로 해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왜냐하면 성서는 교황의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명백하기 때문이었다. 성경은 이중의 명백성, 즉 외적 명백성과 내적 명백성을 지니고 있다. 전자는 말씀의 선포에 있으며, 후자는 마음의 인식에 놓여있다. 특히 내적 명백성은 오직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다. 성령은 성서의 본질적 의미를 깨닫도록 돕는다.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성서의 한 글자도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성서는 전혀 모호하지 않으며, 가톨릭 교직의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루터는 성경 지상주의자는 아니었다. 그에게 있어 최우선적 권위는 성경의 정경이 아니라 성경에서 발견되는 복음이었다.

한편, 종교개혁의 내용적 원리는 오직 은총과 오직 신앙이다. 루터는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교리를 성경을 통해 발견했다. 구원은 인간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총으로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오직 은총만

18) 알트하우스, [마르틴 루터의 신학], p. 25.

19) 로제, [마틴 루터의 신학], pp. 173, 267.

이 인간을 구원하는 반면, 인간 편에서 본다면, 오직 신앙만이 인간을 구원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며, 인간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복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신 칭의를 받는 것이 곧 구원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신앙으로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에 이른다.²⁰⁾

종교개혁이 대중들의 호응을 얻게 된 또 다른 원리는 만인 제사장 직 개념이다. 로마 교회는 사람들을 두 부류, 즉 영적 계급과 세속적 계급으로 구분했다. 교황, 주교, 사제, 승려는 전자에 속하고, 군주, 영주, 직공, 농부는 후자에 속한다. 영적 계급의 성직자들은 하나님과 인간 중간에 위치하여 양자를 중보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중보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모든 크리스찬은 참으로 영적 계급에 속하며, 그들 가운데는 직무상의 차별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²¹⁾

루터가 만인 제사장 직을 주장한 주요한 근거는 사도 베드로의 증언이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벧전2:9).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들이요 왕들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고, 모든 제사장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 사제로 성별된다. 우리는 각자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반드시 필요할 때에는 어떤 사람이나 세례를 베풀고 사죄할 수 있다.”²²⁾

루터의 만인 제사장 교리는 교회 안에서의 영적 계급의 담을 허물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적 권위와 기회를 균등이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2. 십자가 신학

루터의 종교 개혁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요 기독교 신학의 근거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십자가의 신학이다. 루터 역시 자신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으로 규정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신학적 진술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시험한다”

20)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p. 45.

21) 루터, [종교개혁 3대 논문], p. 29.

22) Ibid., pp. 31, 311.

“십자가의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루터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십자가의 신학은 영광의 신학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두 신학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관점과 방법이 서로 다르다. 영광의 신학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며 영광에 쌓인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반면, 십자가의 신학은 숨겨진 것으로부터 보이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며 고난에 감추어진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즉 전자는 창조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비가시적 존재를 이해하려는 것, 하나님을 그의 능력, 지혜, 영광 가운데서 직접 인식하려는 것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숨겼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보이는 뒷면을 인식하려는 것을 말한다.

루터는 하이델베르그 논쟁(1518)에서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을 대비시키며, 그 성서적 근거를 검토했다. 영광의 신학은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를 원용한 것이라면, 십자가의 신학은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에서, 모세는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는 본문을 원용한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와 하나님의 등, 즉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본질과 하나님의 보이는 것은 대립적인 요소다. 전자는 하나님의 위엄 있는 속성을 가리킨다면, 후자는 그의 인간성, 허약함, 우둔함(고전1:15)을 가리킨다.

루터에 따르면, 로마서 1장의 본문은 원(原) 상태적인 가능성을 지적한 것인데, 사람들은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오용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를 고난으로부터 인식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을 십자가의 비굴함과 모욕 가운데서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의 영광과 위엄 가운데서 인식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충분하고 유익한 것이 아니다.”²³⁾

로마 가톨릭교회의 스콜라 신학은 피조물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의 비가시적 존재에 대한 인식에 이르려고 했다. 그것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신학 방법이요, 인간의 이성을 기독교 신학의 근거로 간주하는 태도다. 또한 그것은 인간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고려 없이 하나님을 인식하려는 영광의 신학이다. 반면, 십자가의 신학은 하나님 인식과 인간이해를 주

23) 알트하우스, [마르틴 루터의 신학], p. 52.

로 십자가 사건에 근거시키려는 것으로,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감추어진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다.

십자가가 신학은 종교개혁 신학과 스콜라신학을 갈라놓는 분기점이다. 그것은 종교개혁 신학의 특징인 동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스콜라신학에 대한 철저한 비판의 산물이었다. 루터가 영광의 신학을 거부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다루고 있다는 것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인식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루터는 참된 신학과 참된 하나님 인식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참된 신학자는 창조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비가시적 존재를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과 그의 뒷면을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통찰하고 인지하는 사람”이다.²⁴⁾

III. 종교개혁과 복음주의

종교개혁 신학은 개신교 신학의 주류를 형성하며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 18세기 경건주의와 웨슬리신학, 19세기 부흥운동의 신학, 그리고 20세기 복음주의 신학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현대 복음주의 신학의 역사적 원천 가운데 하나요, 복음주의의 정체성을 해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다.

복음주의와 종교 개혁의 관계는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으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다. 루터는 개혁자이기보다는 복음주의자이기론을 원했으며, 복음주의자 또는 복음주의적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도 종교개혁자들이었다. 루터를 추종하던 종교개혁파 교회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해 ‘복음주의적’이란 명칭을 사용했다. 그렇지만 루터가 복음주의란 말을 사용했다는 것이 종교개혁과 현대복음주의와의 특별한 관계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프로테스탄트와 동의어로 사용된 것이며, 모든 프로테스탄트들은 복음주의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

24) 하이델베르그 논쟁의 논제 19와 20. 알트하우스, [마르틴 루터의 신학], p. 51 재 인용.

이다. 따라서 종교개혁과 현대 복음주의의 관계는 그런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것에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개혁의 중심 주제들이 복음주의 운동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이 종교개혁과 복음주의의 내적 관계다. 종교개혁의 표어, 오직 성경, 오직 은총, 오직 신앙의 원리가 복음주의의 뿌리요 정체성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복음주의는 “이신득의 교리와 오직 성경의 원리와 같은 종교 개혁의 중심 주제를 확고히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복음주의의 초점과 결정적 표준으로 복음주의 의식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²⁵⁾

로마 가톨릭 교회와 종교개혁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 가운데 하나는 권위의 문제, 즉 성경과 교회의 관계였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가 두 종류의 전통, 즉 기술된 전통으로서의 성경과 비 기술적 전통으로서의 구전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는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며, 어떤 책이 영감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정경인지를 규정했다. 따라서 교회와 전통은 신약성서 보다 먼저 존재했으며, 더 권위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교회 되게 한 것은 복음이라고 주장했다. 교회가 정경을 확정한 것은 사실이나, 그 교회를 창조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다. 정경은 시간상으로는 교회가 태동된 이후, 완성되었으나, 논리상으로는 교회의 출현 이전에 존재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의 수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가 성서 아래 있는 것이지, 성서가 교회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²⁶⁾ 현대 복음주의는 이 두 상반된 견해 가운데 종교 개혁자들과 입장을 같이 한다. 복음주의는 ‘오직 성서만’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했던 종교개혁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 개혁자들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신약 성서적인 교회로부터 이탈했다고 평가하고 그것을 개혁하여 사도시대의 순수한 기독교의 모습을 회복시키고자 했으며, 그것이 종교개혁의 제일의 목표였다. 이런 면에서 복음주의는 종교개혁 정신과 다를 바 없다. 복음주의라는 용어는 복음 자체를 강조하는 표현이며, 복음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복음을

25) 알리스트 맥그라스,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0, p. 22.

26) 버나드 램, [복음주의 신학의 흐름](서울:생명의말씀사, 1985), pp. 28 - 30.

보존하고 선포하려는 기독교의 역동적 운동이다.

한편, 종교개혁의 두 가문을 형성한 것은 루터와 칼빈이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제1세대라면, 칼빈은 그 뒤를 이은 제2세대였다. 이 둘은 각각 독일과 스위스에서 종교를 개혁하려 했다는 지역적 차이 이 외에도, 교리와 신학에서도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루터가 체험적 신앙을 강조한 것은 그 자신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았다. 친구와 겪은 벼락 사고는 그가 법학 공부를 포기하고 수도사가 된 결정적 동기였으며, 수도원에서 죄 문제로 고민하다 깨달음을 얻은 탐의 경험이나 면죄부 판매 사건은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직접적 요인이었다. 종교적 체험은 그의 신학의 원칙에 속하는 것이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영과 마음에서 체험 가운데 그 진가를 발휘한다”고 주장했으며, 죄와 은총의 문제에 관해서는 성서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한 자신의 체험에도 의존했다.²⁷⁾ 한편,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주도한 츠빙글리나 칼빈은 어떤 종교적 체험보다는 대학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따라서 교리적 신앙을 강조한 것이 그들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 루터와 칼빈은 루터교회와 개혁교회라는 개신교의 주류를 형성했다. 뿐만 아니라 복음주의의 두 주요 흐름, 즉 체험적 복음주의와 교리적 복음주의는 그들의 강조점의 차이에 뿌리를 두고 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경건주의, 부흥운동, 성결운동, 오순절 운동과 같은 체험적 복음주의에 깊은 영감을 주었다면, 칼빈의 종교개혁은 정통주의, 청교도운동, 세대주의, 근본주의 등 교리적 복음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복음주의의 전 지평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종교개혁은 복음주의의 근원적 원천이기는 하나 유일한 근원은 아니다. 현대 복음주의는 종교 개혁뿐만 아니라 청교도운동, 경건주의 운동과 같은 뿌리로부터도 상당한 자양을 공급받으며 성장한 현대의 산물이다. 그렇다면 복음주의가 종교개혁과 지평을 달리하는 것은 무엇인가? 베빙톤(David Bebbington)이 지적한 복음주의의 네 가지 특징, 즉 회심주의, 성서주의, 활동주의, 및 십자가 중심주의를 종교개혁신학과 비교하면,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성경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27) 알트하우스, [마르틴 루터의 신학], p. 27.

십자가 고난을 통한 구속사역에 초점을 두는 점에서는 종교개혁자들이나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동일하다. 한편 회심주의와 활동주의라는 측면에서는 양자의 입장이 구별된다. 종교개혁자들은 무엇보다도 교회 개혁에 관심이 있었다. 종교개혁의 과제는 이미 정착된 기독교 문화의 맥락에서 기존 교회의 구조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려는 것이었다. 반면, 불신자들을 회심시키는 복음 전도와 선교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²⁸⁾ 반면, 복음주의는 불신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회심과 복음 전도에 우선권을 두는 전도와 선교를 강조한다. 또한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을 죄와 용서라는 법적인 면에서 이해한 반면, 복음주의자들은 성령을 통한 내적 변화, 즉 중생과 회심을 강조하고 있다. 그 외에도, 현대 복음주의는 현대라는 역사적 정황 속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현대성으로부터도 적지 않은 요소를 받아들였다. 상식 실재론, 대중주의, 개인주의, 경험주의 같은 것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복음주의는 종교개혁 사상의 중요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종교개혁으로 복귀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결 론

종교개혁은 성서와 신앙의 재발견 운동이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재발견으로부터 잉태되었으며 로마 가톨릭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계기로 분출되었다. 면죄부는 선행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상징이었으며, 복음으로부터 이탈이었다. 중세 이래로 로마 가톨릭교회는 신앙 보다 인간의 공덕을 중시하여, 심지어 면죄부 구입으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물질주의와 최고의 권위를 성서보다 교황에 둬으로써,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다고 주장하는 교권주의에 빠졌다. 이렇듯 물량주의와 교권주의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가톨릭교회에 대항하여 ‘오직 성서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은총만으로’를 기치 삼아 분연히 일어섰던 사람이 루터였다. 루터의 개혁 사상은 최고의 권위는 성서에 있으며, 인간의 구원은 믿음에 의

28) 맥그라스,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 p. 23.

해 이루어진다는 단순하고 명료한 성서 진리였다.

그렇다면, 복음주의가 종교개혁으로부터 물려받은 역사적 유산은 무엇인가? 종교개혁의 근본정신은 무엇인가?

첫째, 개혁 정신이다. 종교 개혁은 복음의 본질을 재천명한 교회 갱신 운동이요, 초대 교회의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복고적 신앙운동이었다. 종교개혁은 부단한 자기 갱신의 사명이 교회에 있음을 말해준다. 교회는 항상 새로워져야 한다. 초대 교회의 사도적 신앙이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형식화되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물량주의와 교권주의였다. 그것은 교회의 세속화였다. 이런 세속화 현상으로부터 복음적 진리로 복귀하고자 했던 것이 종교개혁이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계속되어야 할 명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교회는 또 다시 물량주의, 교권주의 그리고 인본주의적 급진신학 사조로부터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물질적인 축복이 지배적인 가치관이 되고 신앙의 주 목적이 되고 있다. 성서보다 어느 특정인이나 집단에 권위가 집중되어 교회와 일반 사회단체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 계시의 절대성은 상대화되고, 인간의 경험과 사유는 중시되고 있다. 이런 얼룩진 오늘의 교회 모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갱신이 필요하다. 교회는 자기성찰과 비판 및 갱신을 통해서만 신약 성서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 성경 중심 정신이다. 종교개혁의 중심 원리는 성경을 중시하는 것이다. 종교개혁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루터가 ‘오직 성서만’을 외친 것은 성서와 전통을 동일시하거나 심지어 성서보다 전통이나 교회에 더 권위를 부여하는 로마교회에 대한 항거였다. 성서만이 무조건적인 권위를 지니는 것이다. 반면, 현대 개신교는 성경에 관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성경의 권위 문제가 신학 논쟁의 핵심 주제가 되었다. 20세기 초반의 자유주의와 근본주의, 그리고 후반의 보수적 복음주의와 진보적 복음주의의 대립은 성서관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종교개혁의 중심 원리는 오직 성서였다. 성서를 중시하는 이 원리가 현대 복음주의에서 흔들리고 있다. 복음주의자들은 성서의 권위를 수호하려 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열정이 역사적 유산이요 자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대 복음주의가 종교 개혁 유산을 계승하지 못하여 위기를 자초한 면도 없지 않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반 지성주의다. 종교개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지성을 존중하는 것이었다. 이는 종교개혁이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 쾰링거는 쾰리히 대학, 그리고 칼빈은 제네바 대학을 근거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그들은 대중적 반지성주의 운동에 반대하고 고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현대 복음주의는 대학이나 학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지성적인 면에서 취약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따라서 복음주의는 종교개혁의 역사적 유산을 계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지성적 경향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반성하고 이를 보완하여 복음주의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